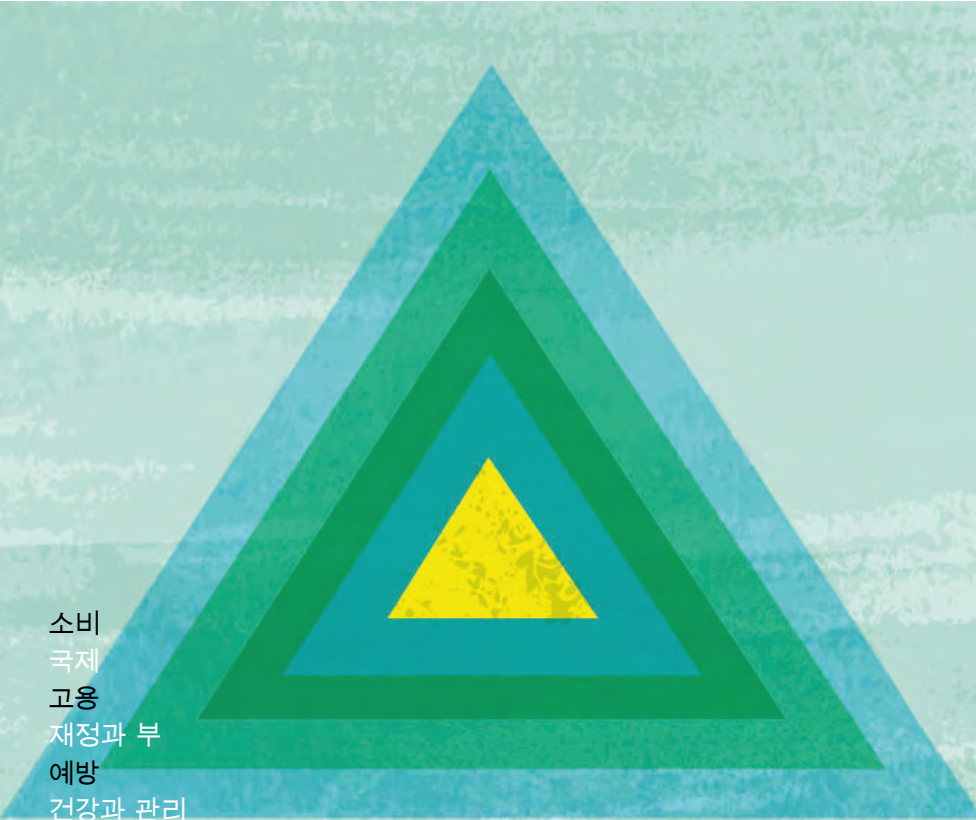


건강이 재산

장수가 대한민국에 주는 이익
최대화하기



소비
국제
고용
재정과 부
예방
건강과 관리
생산성
비용

훗터 보기: 장수가 대한민국에 주는 이익

- 2018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37%가 50세 이상이었습니다.2035까지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35년 까지 50세 이상이 대한민국 노동력의 6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성인들은 2014년에 총 9천 2백만 시간의 무급 돌봄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고령 인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자원을 축 내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고령층이 미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 소비, 돌보기, 자원봉사는 물론 가장중요한 건강장애와 같은 피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면 고령층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들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자원봉사 등을 하여 질병 예방책에 투자한 돈이 회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20 회원국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에 0.1퍼센트만 더 투자해도 고령인구 소비자의 소비 추가 상승률이 9% 상승하며 자원봉사 시간은 평균 10시간 더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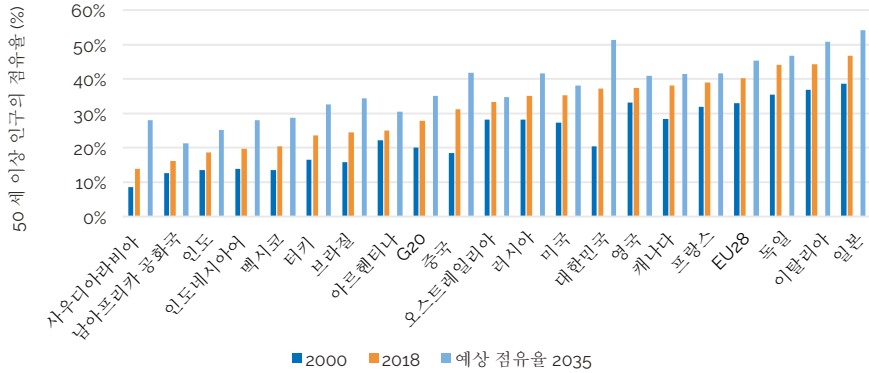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이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오늘날 대한민국 고령층의 경제 기여도를 집중 조명하고, 또한 장수가 사회에 주는 이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룹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 ‘고령화 사회 뉴딜(Ageing Society New Deal)’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의료 예산 중 질병 예방 지출을 6% 높이고 고령층의 유급 및 무급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37%가 50세 이상이었습니다. 2035년까지 51%로 증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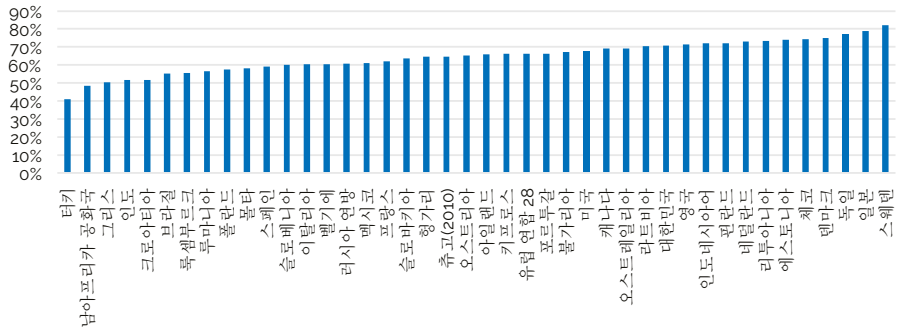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 예상 추정치(2000년~2035년)



점점 더 많은 고령층이 일을 하고, 돈을 벌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50~64세 인구의 71%가 고용 상태입니다.
- 2035년 까지 50세 이상이 대한민국 노동력의 6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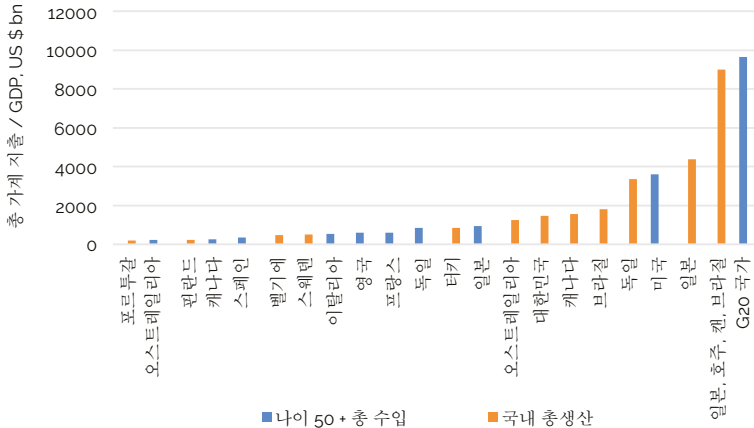
50세~64세의 취업률(2018년)



고령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시장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50년 까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소비자의 34%를 차지할 것입니다
- 2014년 G20 지출에서 고령 가구의 지출은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의 GDP를 합친 수치를 넘어섰다.
- G20 회원국의 경제 시장은 고령층의 성향과 취향을 반영하도록 발달할 것입니다. 고령층이 주택 및 주거, 건강, 교통, 여가 및 문화, 가정용품과 서비스 등의 주요 분야의 소비 지출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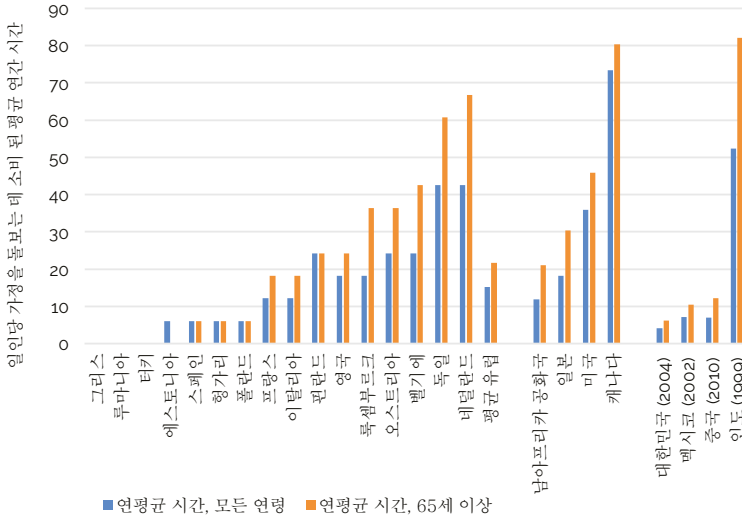
G20 회원국의 연령별 평균 가계 소비지출(GDP 대비 총 소비 비중)



고령층의 무급 노동이 지역사회를 떠받치고 경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고령층은 자원봉사, 부양, 손주 돌봄 등과 같은 무급기여로 그들의 지역사회에 상당한 가치를 기여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1년에 평균 6시간 자원봉사를 합니다.

G20 회원국, 유럽(2010년) 및 유럽 외 국가(다른 연도)의 연령별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



그런데 비포용적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장애같이 피할 수 있는 장벽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 소비, 자원봉사와 돌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 간의 비교:

- G20 회원국중에서 의료지출이 더 많은 나라의 고령층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소비를 더 많이 하며,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평균적으로).
- G20 회원국 중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고령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65세에서 69세의 고령층 취업률이 더 높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소비율도 더 높습니다.
- G20 회원국 전반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 예산을 0.1퍼센트만 높여도 60세 이상 인구의 연간 소비가 9% 증가하며, 6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평균 10시간 더 늘어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건강을 더 우선하고 또한 고령층을 지원하는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극히 이례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코로나는 경제와 건강이 가진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질병 예방에 대한 투자 부족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기회로 삼아 미리 예산을 조성하여 미래에는 장수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고령화 사회 뉴딜(Ageing Society New Deal)을 시작할 때입니다

1. 의료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 인식 고취
 - 의료 예산의 최소한 6%를 질병 예방에 투자. 캐나다가 이 수치를 달성한 반면, 대부분의 나라는 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의료예산의 2.9%를 질병 예방에 쓰고 있습니다.
 - 의료 불평등 문제해결: 취약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나이의 모든 취약층에 의료지출을 우선하는 맞춤형 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 건강과 포용성(포용적 개발 지수 등) 같은 요소의 측정치로 GDP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2. 고령화와 변화하는 사회의 고용 지원
 - 고용주에게 장려책을 제시하여 고령자 취업의 장벽을 줄이기.
 - 규제 조치를 없애고(의무적 은퇴 연령), 융통성 있는 역할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려책을 도입하고 지원.
 - 평생 교육에 투자:
3. 증가하는 고령층의 소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열기
 - 의료와 돌봄 분야를 지원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 인식 고취.
 - 고령층 요양 사업 지원.
 - 지역 사회 내의 소비를 막는 장벽 제거.
4. 무급 노동에 대한 지원과 인식 고취
 - 무급 돌봄과 관련 조부모 지원.
 - 나이에 관계없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장려책 마련.

이 요약 보고서는 Sanofi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와 연구는 “Health equals wealth: The global longevity dividend” 보고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lcuk.org.uk/healthequalswealth>

건강은 부와 같다: The global longevity dividend report”는 Sanofi 및 Legal & General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독립적 ILC 보고서입니다.

ILC 소개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UK(ILC)는 장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영국의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ILC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장수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인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Global Alliance의 창립회원 중 하나입니다. ILC는 인구 통계 변화, 고령화와 장수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장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전문가, 정책 입안자, 실무자들과 협력하여 대화를 조성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번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ilc...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UK**

Vintage House
36-37 Albert Embankment
London SE1 7TL
Tel : +44 (0) 203 242 0530
www.ilcuk.org.uk

2022년 출판 © ILC-UK 2022

자선 등록 번호: 1080496.